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2월 28일)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한국불교 미래 밝혀 신뢰받는 종단 변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신년회견서 밝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원행 스님. 사진=박재완기자

남북관계 개선에 종교 역할
7대 중점 종책과제도 제시
"국민 평온한 휴식처 발원"

조계종이 올해 "백만원력으로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의 등불이 되겠다"는 종단 운영 기조를 세웠다.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본격화하면서 불교 위상강화와 대사회 활동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2564(2020)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기조와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원행 스님은 먼저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다사다난이라는 말 그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 그리고 한일갈등과 남북문제를 비롯한 열강들의 이해충돌 등 어느 것 하나 순탄한 영역이 없었다"며 "그 속에서 조계종은 국제행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국불교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저력과 희망을 확인하면서 때로는 비판과도 마주해야 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종단 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한국불교의 저력과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모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가장 중요한 올해 사업계획으로 '남북 민간교류'를 제시했다. 남북 · 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해빙무드에 접어들었던 남북관계가 최근 다시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영역이 아닌 민간 · 종교영역에서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행 스님은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우리 민족의 뜻대로만 진행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먼 옛날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지리산과 가야산에서 우리 민족 스승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앞으로 내딛어야 할 때"라며 "그 힘은 오로지 '남북의 공존과 번영, 한반도 평화정착과 인류의 화합'이라는 화두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전통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앞서 조계종이 북한과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사와 유점사 등 추가적인 북한사찰 복원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조계종이 보유 중인 북한사찰 문화재를 북한에 봉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북측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선다.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 △혁신 △승려복지 △교구중심 △문화창달 △교육과 포교 △사회 등 7대 중점 종책과제를 제시하며 미래불교를 위한 밑거름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재임 당시 불법으로 규정한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가해 해종행위자로 분류된 스님들을 사면하는 대화합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앙종회 해종특위를 거쳐 총 52명이 해종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며, 총무원은 종정 진제 스님의 하교에 따라 대화합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다만 1994년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중앙종회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행 스님은 "바닥 얕은 개울물은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2020년은 화합과 혁신, 평화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사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조계종은 안정과 화합, 혁신으로 사부대중에게 한국불교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고, 국민들께는 평온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클리 포커스 2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경자년 신년하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김정숙 여사가 부처님전에 등 공양을 올린 뒤 합장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년하례법회에 동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교, 사회공동선 실현에 앞장을"

종단협의회, 16일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지난해 이어 김정숙 여사 동참
'한반도 평화' 한마음으로 기원

경자년 새해 한국불교계가 국가와 불교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64(2020)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하례법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김정숙 여사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원행 스님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오는 4월 총선을 짚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치와 종교영역 모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 여사와 부처님전에 등 공양을 올리며 국민들이 밝은 새해를 열어 나가길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산업환경,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통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희망하고 있다.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 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근절하며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사회공동선 실천활동도 불교계가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불교계 주요 행사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김정숙 여사도 이에 공감하며 불교계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강원도의 오래된 한 사찰 현판에 '설청구민(說聽俱泯)'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다. 서로 마음의 귀를 열 때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경계가 모두 지워지는 그곳에는 갈등도 대립도 없다"며 "우리 모두 하심한다면 상생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국제포교사회 'Global포교' 나선다

18일 정기총회서 계획 공개
템플스테이 탈피한 수행체험
말하기대회 · 해외포교 공모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가 새해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포교'에 나선다.

국제포교사회는 1월 18일 2020정기총회 및 신년법회를 개최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이주민 말하기대회와 연등회 참여 외국인 대상 불교문화 투어 등을 통해 활발한 포교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국인 대상 불교문화 투어다. 지난해 국제포교사회는 연등회 체험 외국인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를 2차례 열고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바 있다. 시점은 연등회 이후 5월 30일로 논의되고 있다.

국제포교사회는 "그동안 연등회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연등회만 참여하여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템플스테이에 이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른바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예전 이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남산과 롯데타워 투어처럼 한국불교 신행의 현장인 도심 주요사찰을 비롯해 불교문화 현주소를 살필 수 있는 곳들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중단된 이주민 말하기 대회 또한 새롭게 재개된다. 국제포교사회는 2017년과 2018년 스리랑카, 네팔, 태국, 캄보디아 등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0월 중으로 열릴 이주민 말하기 대회는 현재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신청에 들어갔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 독일에서 시작된 해외포교의 선사례를 이어가기 위한 공모사업도 진행된다. 기초불교영어 강좌도 1월 4일 56기 입재에 이어 4월 4일 57기, 7월 4일 58기 입재가 진행된다.

김성림 회장은 "공부하고 수행한 결과를 중생구제의 일환으로 정체성에 부합하는 해외포교로 이어지게 하고자 한다"며 "재정문제로 많은 인원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 한 해 새로운 전법포교를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